

2022년 표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



1부, 2부, 3부 예배 **SERVICES**

인도: 박영관 목사 (Rev. Young Gwan Park)

● 입례찬송 23장 Opening Hymn 만 입이 내게 있으면 O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예배로의 부름 Call to Worship

● 찬송 Hymn 185장 이 기쁜 소식을 Oh, Spread the Tidings Round 4, 5부 예배 SERVICES

4부 영어예배

설교 김정호 목사 Sermon Rev. Chongho Kim

Acts 2:1-21

"Pentecost: Holy Conferencing Possible"

5부 예배

설교 이동준 목사 Sermon Rev. Dongjun Lee

> 에베소서 (Ephesians) 3:14-21 "바울의 두번째 기도"

기도 Prayer

찬양

Anthem

"성령이여 강림하사" by J.R. Sweeney

"불 같은 성령" by 민세나 2,3부 찬양대

견신례 (11시) Confirmation

___ 환영 인사 및 광고 Welcome & Announcement

● 영광송 & 봉헌 Doxology & Offering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사도행전 (Acts) 2:1-21 (시 104:24-34,35b, 롬 8:14-17, 요 14:8-17)

설교 Sermon "성령에 취한 사람들" (Pentecost: Holy Conferencing Possible)

김정호 목사 Rev. Chongho Kim

1부 나혜란 권사

2부 문정홍 장로

3부 김성태 장로

1부 찬양대

● 결단 찬송 Hymn of Response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I'm Rejoicing Night and Day

축도 Benediction

> ■ 표에서는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as you are able at the mark

교회소식 ANNOUNCEMENT

01. 안내 Welcome to FUMC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교회 안내와 교제 의 시간이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에게 알려주세요.

02. 예배실 방역 지침 변경 안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화에 따라 예배실 출입시 발열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내에서 개인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영상예배: https://www.fumc.net/web/live

03. 새벽기도회 와 수요예배 재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으로 그동안 대면으로 모이지 못했던 새벽예배와 수요예배가 재개됩니다.

새벽기도회 시작: 6월 13일(월요일) 오전 6시 / 예배실

수요예배 시작: 6월 15일(수요일) 저녁 8:30분 / 예배실

* 실시간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04. 6월 속장/부속장 대면 모임안내

정기 속장·부속장 모임이 오는 6월 5일 주일 3부 예배후 성가대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속장·부속장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대신할 개별 음식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05. 견신례 Confirmation Ceremony

견신례: Jasmine Feng (팽초미) 1명

(지난 부활절 때 참석하지 못해 오늘 견신례를 받게 됩니다.)

06. 주일 차량 라이드 이용자 모집

주일 예배 참석자를 위한 라이드를 제한적으로 시작합니다. 교회로 전화주시면 인원과 동선을 고려하여 추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화: 718-939-8599

07. 우크라이나 구조지원금 전달 Ukraine relief fund

그동안 성도분들이 모아주신 우크라이나 구조지원금 \$50,000을 현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장이자 구제위원회 회장인 토마스 비커튼 (Thomas Bickerton) 감독에게 전달 하였습니다.

08. 친교실 떡 준비

기념일을 맞이한 교우 가정에서 친교실에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09. 중보기도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위치: 사무실 2층 중보기도센터 *중보기도함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0. 온라인 헌금 안내 Online Giving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 www.fumc.net/web/offering 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에 헌금(Offering)을 누르고 바뀐 화면에서 중앙 사진을 릭하면 헌금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목회실 718-939-8599

*메모란에 한글이름 또는 헌금 바코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11. 서로돕기 사역 안내 Blessing Store

비전센터에서 도네이션 받은 의류와 생활용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으로 지역 선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유용한 생활용품(의류, 신발, 가전 등)을 도네이션 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오후4시 (비전센터 1층) 문의: 목회실

* 매주 목요일 야채 등을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다.

12. 여름철 간편복 권장

더워지는 날씨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예배 참석 시 정장 대신 가벼운 옷차림을 권장 합니다.

모임안내 MEETINGS

'한인회중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Remembering for the Future

'예수 희년목회(선교) 실현하는 교회(누가 Luke 4:18-19)'









생방송(Live)

https://www.fumc.net/web/live/ 새벽예배와 수요예배, 주일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으로 예배시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SERVICES

주일 SUNDAY

::1부 8:00 am 본당 ::2부 9:30 am 본당 ::3부 11:00 am 본당 ::4부(영어) 1:00 pm 본당 ::5부 2:30 pm 본당

영어예배 ENGLISH SERVICES

::SUN 1 pm MAIN CTR

주중예배 WEEKLY SERVICES

::새벽 6am 온라인 ::수요일 가정예배

교육부 예배 및 모임 SUNDAY SCHOOL & YOUTH

주일 SUNDAY SCHOOL (ED BLDG) 영아부(만2세미만) 11 am

유아부(만3세미만) 11 am 유치부(만3-4세) 11 am

유초등(K-5) 11 am

청소년 YOUTH (ED BLDG)

중등부(6-8) 11 am 고등부(9-12) 11 am

교회 부설 학교

FUMC ACADEMY

K-Culture School 9:30 am (Sat)

제일유아원 10 am (T-F) (코로나 상황으로 잠시 휴교합니다.)

섬김의 사역자 학교

주 일 1pm / 1:30pm

목회상담실

문의: 718-939-8599

설교방송 TV/RADIO

주일 7 am Voice of NY 라디오 코리아 FM 87.7 (앱 FM 877)

주일 9 am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월요일 7:10 pm CGNTV(TWC 1296/1492, DTV 63.2)

토요일

CTS (CableV 1156, DIRECTV 2092)

-9 pm

cbsn (www.cbsnewyork.net) -9 am/7 pm

예배안내 Upcoming Worship Services

<6월 설교 안내>

6/5 성령에 취한 사람들 사도행전 2:1-21

(시 104:24-34,35b, 롬 8:14-17, 요 14:8-17)

6/12 예수 영광 나타내는 성령 요한복음 16:12-15

(잠 8:1-4,22-31, 시 8, 롬 5:1-5)

6/19 군대귀신 물리치신 예수님 누가복음 8:26-39

(왕상 19:1-15a, 시 42, 갈 3:23-29)

6/26 하나님 나라 우선 누가복음 9:57-62

(왕하 2:1-2,6-14, 시 77:1-2,11-20, 갈 5:1,13-25)

<5,6월 주일예배 기도 및 헌금 담당> Sunday Service prayer

날짜	1부 기도	2부 기도	3부 기도
6/5	나혜란 권사	문정홍 장로	김성태 장로
6/12	임봉선 장로	심혜원 권사	김유진 집사
6/19	연영숙 집사	윤경희 집사	전기홍 권사
헌금담당	김인숙 권사	문영미 권사	강효영 권사

<수요예배 안내> Wednesday Service

* 당분간 수요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니다.



가나안 주차장 Roosevelt Ave. 선상 144가와 147가 사이

● 쉴드 주차장 38thAve.선상 ParsonsBvd.와 147가 사이

● 글리슨 주차장 149 Pl. 와 38 Ave. 사이

전도의 최전방 지키는 작은 교회 살리기

담임목사 김정호

어제 나성에서 온 기독교방송 대표 말씀이 코로나 이후 36% 한인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 교인들이 대부분 큰 교회로 이동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작은 교회 살리기운동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분 말씀이 작은 교회들이 그동안 최전방에서 전도에 가장 열심이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 살리는 일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전 날에 교인 한 분이 코로나 이후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싶다며 큰 액수의 헌금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하늘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려운 때 나눔은크게 고마운 것입니다.

작은 교회의 현실은 우리 교단이 심각합니다. 뉴욕연회 비커튼 감독께서 며칠전 목사들을 소집해서 목사 부족현상과 교회 지속성 (sustainability) 문제 해결방안으로 협력교구제(cooperative parish)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다섯 교회를 목사 2명이 함께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예배, 나아가서 재정과 재산까지도 공유하는 방안도 제기됩니다. 교인들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어려울 것이고 잘못하다가는 교회 건물 팔고 합치면서 결국은 교회 문닫는 현상이 가속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협력 시스템을 창출해 낼 수 있다면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회 현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 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교회의 존재목적을 지켜내도록 요구하십니다. 학생들이 오지않으니 세개의 감리교 신학교를 하나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 유성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다. 외적위기는...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교회신뢰도의 추락, 안티기독교 세력의 확산, 소득 3만불 시대 종교에 대한 무관심, 세속주의, 물질만능주의... 내적위기는 영적위기, 기복신앙, 이원론적 신앙생활... 차세대교육의 부재, 이단들의 도전, 교단정치의 폐해, 교회 리더들의 정체성 위기 등을 들 수 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우리 이민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방안을 "오직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합니다. 사도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지난주일 비커튼감독께서 후러싱제일교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5만불 헌금한 것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잘 견뎌?"하기에 "난 어려움에 매몰될 자유와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후러싱제일교회 잘 지켜낼 것입니다. 당신은 감독회장으로 이 교단 잘 지켜내기를 기도해요. 화이팅!"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가 제게 "요즘은 목사님 교단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 안하시는 것 같아요."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이 값 하려고. 나이 먹은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 해야지. 내가 젊어서 선배어른들 비판하고 그랬지만 돌이켜 보니 그 어른들이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먹었더라.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나무 열심히 심고 후배들이 디디고 건너갈 디딤돌 역할하면다."

80년대 내 딴에는 정의평화, 민주통일운동 열심히 한다 하면서 교회가 크지 않아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행복했습니다. 제 아내는 큰 교회 목사라고 제가 한창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면 항상 "당신 목사같지 않다. 그만두고 다시 개척교회 해."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가 꼭 작

후러싱제일교회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작아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www. fumc.net